

재조일본인의 지방 발전사 간행에 대한 새로운 이해

『조선의 보고-전라북도 발전사』

최혜주*

목 차

- | | |
|-----------------------|----------------------|
| 1. 머리말 | 3. 재조일본인의 지방 발전사 간행의 |
| 2. 『조선의 보고-전라북도 발전사』의 | 특징과 한계 |
| 구성과 내용 | 4. 맺음말 |

1. 머리말

『조선의 보고-전라북도 발전사』는 1928년 우즈기 하츠자부로(宇津木初三郎)가 익산의 문화상회¹⁾에서 간행한 전라북도 지방의 발전사이다. 원제 『朝鮮の寶庫 全羅北道發展史-一名 全北案内』를 임경택 교수가 번역하여 2021년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에서 간행하였다. 일제강점기 재조일본인이 간행한 전북지방에 관한 지방사 자료는 많지 않은 편이다. 『조선의 보고-전라북도 발전사』는 재조일본인들이 지방사 편찬사업의 일환으로 조선사정을 조사한 결과물

* 전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교수, E-mail: heajoo@hanmail.net

1) 『조선의 보고-전라북도 발전사』, 149쪽에 의하면 문화상회는 야마우치(山内哲)가 1924년 5월 이리금융조합 이사를 그만두고 7월에 이리우편국 옆에 개업했다. 인쇄·석판인쇄·서양식 장부·각종 제본 등을 취급하였다. 1년 간의 인쇄고는 약 4만 원을 돌파할 정도로 주문이 쇄도했다고 한다.

의 하나이며, 나아가 이주 일본인들의 고전과 분투로 전라북도의 지역사회가 발전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먼저 이 책의 저자인 우츠기에 대해서는 신문기자라는 사실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다. 그가 어디 소속이며 이 책을 출판한 배경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우츠기는 『朝鮮新聞』 「지방인사」 소식(1925년 8월 20일자)에 의하면 군산일보 기자인 것을 알 수 있다. “군산일보 기자 우츠기 하츠자부로씨는 이리(裡里) 화원정(花園町)에 주택건축 중인 곳의 준공에 즈음하여 지기(知己)를 초대 신축 피로연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 둘째, 같은 신문 기사 「裡里의惡道路, 桃園町有志の美舉」(1926년 1월 21일자)에 의하면 이리 시내 전반의 도로사정이 나쁘고 진흥도로였을 때 예산 관계상 도로의 수선을 바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때 다요네(田米三郎), 우츠기(宇津木初三郎), 혼다(本田某)가 수십 명을 동원하여 이리기관고(裡里機關庫)의 석탄각(石炭殼)을 가져다 도로를 수선하고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보도된 것이다.²⁾ 그는 전라북도 익산군 익산면 이리 758번지에 주소를 두고 도원정(桃園町)의 유지로 살았던 재조일본인이었다. 일본의 어느 현 출신이며 언제 건너왔는지는 알 수 없다. 셋째, 『京城新聞』 기사에는 총독부 경무국 도서관의 「금일의 신간」을 공개하고 있다. 1931년 3월부터 다음해에 걸쳐 우츠기가 편집인으로 월간지 『朝鮮之産業』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잡지는 이리에 있는 합자회사 조선지산업사에서 발행한 것이다. 이 잡지사의 대표는 오사와 신타로(大澤甚太郎)로 1929년 2월 20일 창립하였다.³⁾ 오사와는 1911년 이래 조선총독부 경찰관서의 육군헌병조장을 시작으로 1920년부터 1927년 9월 29일까지 익산면장을 지낸 인물이고 이후 잡지를 창립한 것이다. 이 잡지에 수록된 조선의 산업에 관한 글이나 여러 자료들도 우츠기가 지방 발전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우츠기는 원서의 마지막에 있는 감사의 글⁴⁾ 후기에서 밝힌 것처럼 군산실업지조선사 기자 시도 요시오(紫藤義雄)의 도움으로 함께 작업한 것

2) “이리 시내 전반에 걸친 악도로(惡道路)에 대해서는 각 정민(町民) 총대(總代)는 익산면 사무소에 수선방침을 신청한다고 해도 예산관계상 면으로서도 방법에 곤란을 가져와 시내 도원정과 같이 면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자각있는 정민이 악로의 수선을 완결하는 취지로 동 정(町) 다요네(田米三郎), 우츠기(宇津木初三郎), 혼다(本田某)의 세 사람은 약 3정(町)에 걸치는 진흥도로에 이리기관고(裡里機關庫)의 석탄각(石炭殼)을 5척 폭 6촌 두께로 사람 수십 명으로 수선을 하고 더구나 이 비용 일체를 전기 세 사람이 부담한 미거에 부근 정민은 감동하고 있다.”

3) 中村資良, 1931,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亞經濟時報社.

4) 번역서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었다. 宇津木初三郎, 『朝鮮の寶庫 全羅北道發展史-一名全北案内』, 문화상회, 452쪽.

을 알 수 있다.⁵⁾

본사(本史)는 군산실업지조선사 사장 마쓰오카 다쓰마(松岡琢磨)씨의 양해를 얻어 동사 기자 시도(紫藤義雄)씨가 군산지방에서 본사의 편집 및 재료 수집 등에 종사하였다. 본 사업의 수행상 전심을 다한 것을 감사함과 동시에 찬조자 여러분의 다대한 후원에 의해 본사를 완성한 것을 이에 특별히 기록하여 후의를 감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조선총독부관보』의 휘보 『豫約出版改題及發行期日變更許可』⁶⁾에는 우츠기가 1927년 12월 26일로 예약 출판할 예정인 『전라북도 안내지』를 『전라북도발전사』로 바꾸고 발행기일 1927년 12월 30일을 1928년 2월 25일로 변경하는 건을 허가한다고 나와 있다. 이를 보면 재조일본인들의 출판물이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당시의 사정을 알 수 있고, 그 내용도 검열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총독부의 시정을 선전하고 대변하기 위한 역할에서 벗어나기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처음에는 ‘안내지’라는 이름으로 발행할 예정이었지만 마지막 출판 단계에서 ‘발전사’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안내서가 아닌 전라북도 발전의 역사를 강조하려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조선의 보고-전라북도 발전사』의 구성과 내용

이 책은 전라북도 지도와 전라북도 도청 도판 그리고 다음 제3장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다른 지방사 책에 비해서는 권두에 수록한 건물이나 인물 사진이 매우 적은 편이다. 『緒言: 머리말』에서 강조한 것은 조선은 ‘낙원’이고, ‘천혜의 보고’인 조선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이를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았다. 『제1장 총설: 1920년대 후반의 전라북도의 개황』에서는 ‘조선의 보고’라 불리는 전라북도의 현재와 과거를 소개하며 일본과 기업가들에게

5) 시도 요시오는 『朝鮮商工新聞』 군산지사에서 『朝鮮施政二十年史』(1930)를 간행한 것을 보면 군산의 실업 사정이나 시정 자료에 정통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1933년에는 『경성일보』 영남지국장(『경성일보』 광고, 1933.1.10.) 1938년에는 마산 부의원에 입후보하여 활동했다.(『경성일보』 1938.4.19.)

6) 1928.1.17. 정규호 312호, 110쪽.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리, 교육, 금융, 농업, 공업, 수산, 경비를 서술하였다.

「제2장 1920년대 후반 전라북도의 각 지역」에서는 군산항, 전주군, 전주면, 익산군, 이리, 옥구군, 김제군, 부안군, 줄포항, 정읍군, 정읍면, 신태인, 고창군, 흥덕면, 진안군, 용담, 장수군, 남원군, 순창군, 금산군, 임실군, 무주군 등의 연혁, 인구, 산업, 교통, 금융, 명승고적 등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 가운데 익옥수리조합, 임익수리조합, 동진수리조합, 고부수리조합의 사업에 대해 그 계획과 면적, 수원상태, 이익, 사업비와 부담금 등을 소개하여 그 이익은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임을 밝혔다.

「제3장 전라북도의 사업계와 경영자」 부분은 필자가 경영자, 지역, 업종, 출신, 비고의 항목으로 나누어 <표 1>과 <표 2>로 작성해 보았다. 번역서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은 가능한대로 보충하여 출신지별로 나누어 <표 1>에서 일본인 146명과 조선인 12명을 소개하였다. 여기서도 조선인 사회에 대한 기술이 매우 적어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인이 가장 많은 지역별로 살펴보면 군산 63명, 이리 46명, 익산 16명, 김제 22명, 옥구 13명, 전주 11명이다. 이밖에 정읍, 부안, 진안, 신태인, 고흥, 함열에 소수의 일본인이 등장한다. <표 2> 사업계에 소속된 일본인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인원이다. 이 책에 수록된 조선인은 문종구(옥구), 조계식(김제), 김병순(익산), 홍종철(고창부안), 백인기(이리), 김화형(이리), 박기순(전주), 박홍규(정읍), 박치규(정읍), 소진문(익산), 최우락(황등), 이배원(익산), 강동희(김제), 김병희(이리) 등이다. 이들은 대지주나 지역의 부호, 미곡상, 농장 경영자가 대부분이고 전북평의원 의원이나 면협의 회원, 학무위원으로 지역의 유지로 활동하였다. 이 표를 통해 전라북도 지역 일본인 유력자의 업종별 활약 상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앞으로 많은 지역연구를 생산해낼 수 있는 기초적 자료이다.

표 1. 전라북도 경영자와 사업계 일람(1)

경영자	지역	업종	출신	비고
오하시 요이치	이리	大橋농장	기후	오하시은행 창립
오쿠라 요네키치	지경	大倉농장	니가타	오쿠라 기하치로의 차남, 군산교회 장로, 修道社 설립
이마무라 이치지로	익산 대장촌	今村농장		전북 평의원
세키 소이치로	익산 함라	關농장		
하시모토 히로시	김제 죽산	橋本농장		전북 평의원, 김제촌장, 김제학교조합관리자
마키 류타로	옥구 서수	槇농장		

경영자	지역	업종	출신	비고
나카노 소자부로	김제 청하	中柴산업주식회사	야마구치	
모리 키쿠고로	군산	군산미곡신탁주식회사	아와지	도평의원, 부의원
아카마츠 시게오	군산	간장 양조업	에히메	상업회의소평의원
오사와 토주로	군산	오사와상회		상업회의소회장, 도평의원
나카시바 만키치	군산	中柴상사주식회사		민단의장
아베 에이타로	군산	미곡, 건축재료상	도사	상업회의소부회장, 민단의장
호소카와 모리타츠	익산 대장촌	호소카와농장	도쿄	후작, 귀족원의원
가타기리 와조	익산 황등	임익수리조합 제창		도평의원, 수리조합장
다사카 사사부로	익산 대장촌	대지주		학교조합의원, 면협의회원
미야자키 케이타로	군산 미면	간척사업	쿠마모토	
오쿠라	옥구 금광	오쿠라 가문농장		임익남부수리조합 설립
문종구	옥구 옥산	岐峴농장	옥구	전북도평의원의원
이케 마사미	김제	미곡상조합장		
히노 키스케	김제	미곡상		학교조합의원
하시다 츠루지로	김제	미곡상		
세토 마사시로	김제	비료, 담배, 석유		
쿠로다 켄타로	김제	건축청부, 재목상		
아베 이치타로	김제	阿部市농장		정미업
이시카와	김제	石川縣농업주식회사		
조재식	김제	잡화상, 정미업	김제	
사토 코스케	김제 부용	농업, 부용학교조합		부용학교조합관리자
오스미 에츠조	김제 부용	정미업		미곡상조합 평의원, 부용학교조합의원
가나모리 겐조	정읍	정미업, 담배		
사토 코스케	정읍	철물점	도쿠시마	학교조합의원, 금융조합
소메카와 도쿠이치	정읍	학교조합관리자		전기
아카키 미네타로	신태인	정미업		
시마타니 야소야	옥구	嶋谷농장		시마타니 농사주식회사

경영자	지역	업종	출신	비고
김병순	익산 합라	대지주	익산	학무위원, 면협의회원
무라이 토메키치	함열	운송업, 정미업	도야마	
홍종철	고창 부안	홍해농장	고창	도평의원
이케다 이치로	정읍	池田농장		
이노우에 곤자부로	옥구 지경	이노우에 농장		지경학교조합, 면협의회
오조노 토스케	옥구 지경	大園농장		현미업자
히가시카와 신즈치	임피	농사경영		
카이 산지	옥구 지경	농사경영		면협의회원, 학교조합의원, 익옥수리조합평의원
이마무라 이치지로	황등	전북축산주식회사		지배인 박지근
마츠우라 히데오	이리	이리통송합자회사		
하라다 츠요시	이리	농사경영		
백인기	이리	화성농장	이리	지배인 아오타 다케지
우에다 쿠마지로	이리	토목건축청부업	야마구치	문화상회, 榮國寺 건축
사사키 나오사부로	이리	잡화		보험대리점, 금융업
야마우치 토오루	이리	문화상회(인쇄업)		이리금융조합 평의원
아사기리 아사노조	이리	토목건축청부업	오카야마	경의선, 호남선 공사
문치순	이리	천성당의원		익산면협의회원
쿠사가야 히데노스케	이리	문방구, 호남총포화약주식회사		이라학교조합 의원, 이리금융조합 평의원
츠치구루마 진사쿠	이리	석탄, 연탄, 기와		익산면협의회원
카나메 마사시치	이리	회생의원		이리고등여학교 촉탁의사
야마노 야스타로	이리	과일도매상	와카야마	
가사마츠 스구유키	이리	미곡상		
이이지마 유조	이리	츠루야지점, 잡화	야마나시	쇼와회 회계간사
이마이 타쿠지로	이리	今井정미소		학교조합의원
도츠카 소타로	군산	군산병원	시즈오카	군산부공의, 군산상공주식회사 사장 외 다수
한다 타키요시	군산	미곡상조합	와카야마	군산미곡신탁회사 상무, 상업회의소 의원

경영자	지역	업종	출신	비고
도이즈미 마사키치	군산	豊泉양행		
이토 에이타로	군산	군산토목합자회사	이와테	스가와라구미
야마모토 가즈오	군산	미곡상	히로시마	학교조합의원
하나오카 츠루마츠	군산	花岡상점	야마구치	군산상업회의소 의원, 미곡신탁회사 사장
마츠마에 켄쿠로	군산	松前양품점	에히메	군산제국재향군인분회장, 학교조합의원
모리타 슈타로	군산	토목건축청부업	에히메	군산토목건축청부업 조합장
마츠바 미츠사부로	군산	松場상점	히로시마	전 점주는 마츠바 엔타로
사토 마사지로	군산	대금업	에히메	군산축항수도기성동맹회장
나카지마 아키라	군산	中島の원	히로시마	군산학교조합의원, 남선전기주식회사 전기연구회 상무위원
가하라 쇼타로	군산	양조업	후쿠오카	부협의원회 군산성업회의소 상무위원
이시쿠라 신이치	군산	건축청부업	시마네	상업회의소 상무위원
이토 코자부로	군산	군산식료품시장	미에	군산거류민단 의원, 상업회의소 평의원
세토야마 덴조	군산	오사카상선 군산대리점	가고시마	군산학교조합의원
마스다 요시츄구	군산	増田양복점	사가	군산신용조합장, 부협의원회, 상업회의소 평의원
우에다 에이키치	군산	제조업	야마구치	부협의원회
니시무라 마나사부로	군산	군산통상합자 회사	시마네	군산 승인운송조합장, 전충운송업자동맹회장으로 천거
이토 타다타카	군산	공설식료품시장		이토 코자부로의 장남
마치이 슈타로	군산	町井인쇄소		상업회의소평의원
오카다 스에키치	군산	岡田상점		학교조합의원, 군산상공회 상의원으로 천거
와타나베 모리	군산	渡邊치과의원	오타루	
마루이 만조	군산	丸井상점 잡화, 석탄상	돗토리	
히가키 마고사부로	군산	면사포 무역상	야마구치	
야노 사부로	군산	矢野포목점		
타니모토 사이치	군산	谷本の원	야마구치	

경영자	지역	업종	출신	비고
후쿠다 마사	군산	福田又군산지점 철물	오사카	福田又兵衛가 만든 상점
구도 츠루마츠	군산	鶴野상점 잡화도매		군산상공회
아카기시 헤이지	군산	타타미 제조판매상		
키베 나카즈구	군산	인력거	오이타	
타카미 야사부로	군산	쌀 상점		
우시오 쇼이치	군산	書肆, 문방구점	시마네	군산무진주식회사와 군산상공주식회사 사장
우에다 보쿠	군산	협동해운주식 회사	나라	학교조합의원
아사노 키하치로	고흥	영농, 우편소, 잡종제조		고흥학교조합 관리자, 재향군인분회장, 우편소장
이노우에 코이치	김제 백구	이노우에농사 합명회사	야마구치	
후지카와 츠요시	진안 용담	농사경영		용담면 협의회원
에구치 마츠사부로	진안 용담	독농가		
야마모토 에츠조	전주			도평의원, 면협의원, 학교조합의원
사이토 신이치	전주	二葉社농장	니가타	
모리타니 겐이치	옥구	森谷농장		
오우기 요네스케	이리	상업, 토지매수, 간척		
이타이 신조	이리	농사경영		
타무라 류스케	이리	해산물 도소매업	야마구치	
아리마 칸타로	이리	토목건축청부 업		이리소방조직 부조장
마츠모토 이치고로	군산	비료, 미곡위탁판매		군산농업주식회사 전무
오키 료사쿠	전주	전주무진주식 회사		담배원매거래회사 지점장
마츠모토 후쿠이치	전주	운송업		전주소방조
후쿠오카 에이타로	이리	철도병원		
타케이치 치쥬로	이리	치과의원		
김화형	이리	대지주	이리	이리보통학교학무위원
아오키 겐이치	이리	아오키식당	히로시마	
박기순	전주		이리	삼남은행 대표, 아들 박영철

경영자	지역	업종	출신	비고
후지이 칸타로	익산	不二전북농장		불이흥업주식회사, 지배인 사토 후쿠타로
박흥규	정읍	정읍군의 부호	정읍	전북도평의회원, 중추원참의
박치규	정읍	미곡상	정읍	박흥규의 동생
오기타 도쿠타로	전주 삼례	정미업, 미곡상		삼례산미개량조합장
야마모토 초자부로	전주 삼례	미곡무역업		삼례산미개량조합장
마즈다 쥬이치로	전주 삼례	미곡상 정미업		삼례산미개량조합원
마스토미 안자에몬	김제	枳富농장		황종철과 고창고보 설립
나카츠카사 키요시	김제	溝水농장	오카야마	
시마모토 잇페이	김제	농사경영자		부용소학교 신축에 기부
구보타 마사오	신태인	미곡상		신태인미곡상조합장, 승합자동차 경영자
쿠스타 세이이치	이리	조선잡업합자회사		전북잡업종업조합 부조합장
야마다 가이치로	김제	야마다정미소		김제학교조합의원
소진문	익산 팔봉		익산	전북평의회원, 팔봉면장
최우락	황등	西城농장	황등	주임 송석희
이배원	익산	삼성농장	익산	합라공립보통학교 설립
후카다 야스토시	정읍	미곡상, 정미업		정읍미곡상조합
야구치 이타로	군산	야구치여관	오이타	군산소방조, 양잠농장 경영
마사키 쇼타로	군산	正木조선소	히로시마	조선업계 중진, 總代
가와노 소자부로	군산	군산주조주식회사	에히메	
요코야마 요이치	군산	横山양조주식회사		책임자 타니가와 사쿠마
시미즈 야스노스케	군산	清水합명회사(전당포)	단고	
히키지 토라지로	군산	법률사무소	미야기	공주지방법원판사, 변호사
미츠토미 카하치	군산	文珠堂, 인쇄업	사가	학교조합의원, 부협의원, 소방조장, 상무회 부회장 등
이와사키 아키지		동산농사회사 전북출장소		지배인 와타나베 코조
히다카 토메이치	이리	미곡상, 정미업	시마네	
타니가키 카이치	군산	미곡상	효고	부협의원
히구치 토라조	군산	군산전기회사	오사카	부협의원, 상업회의소평의원·회장
시로이 카츠토라	김제 공덕	농사개량	쿠마모토	황산산미개량조합장, 부용학교조합의원

경영자	지역	업종	출신	비고
하라다 요시츠구	김제	미곡상, 정미소		김제학교조합의원
미야모토 우이치로	김제	김제학교조합 서기	쿠마모토	
강동희	김제	농사경영	김제	관직 사퇴 후 축산동업조합 부조합장, 만경금융조합이사, 만경공립보통학교 학무위원, 전북도평의원
야기 마사하루	지경	八木농장(간척 사업)		주임 기무라 분페이
미야자키 키치조	전주	목재상		토목건축업자 공영회 회장
가와노 나가히사	부안	川野농장		고부수리조합장
고가 다이고	이리	古賀의원		
야마자키 마사히라	이리	대교농장 지배인	니가타	이리학교조합의원, 익산면협의원
다키다 미노루	이리	右近상사주식 회사 남선출장소 지배인		전라북도 농회임원, 동진수리조합 상설위원
나가하라 쿠니히코	익산	細川농장 지배인	쿠마모토	
아오다 타케지	이리	화성농장 지배인		이리금융조합장, 이리학교조합의원
가와모토 쿠니사부로	이리	익산면장	도쿄	전북철도 전무, 이리학교조합관리자
요코다 우노스케	이리	横田포목점		
야마우치 우마조	이리	山内상점, 식료잡화		이리학교조합의원
타지마 히로시	이리	田島山陽농원		익산군청
이케다 요시스케	옥구 임피	池田농장		현재는 이케다 토요이치 경영
김병희	이리	부호, 실업가	이리	익산면협의회 회원
다카하시 쉐타로	부안	줄포해운조합 전무		
아오키 토시오	부안	수산가공업		
토마카시 쉐고	부안	줄포운수조합		수산업
쿠마모토 리헤이	옥구	熊本농장 대지주	카츠모토	보인회, 군산교육회
이시자키 신타로	익산	농사경영, 소학교 설립		학교조합 관리자, 여산산미개량 조합장
아와 에이이치	이리	三重농장	미에	
사나다 노하루	익산	眞田농장		지배인 사나다 쥬스케

표 2. 전라북도 경영자와 사업계 일람(2)

사업계	지역	업종	비고
동척주식회사	이리		지배인 히사마츠
삼남은행	이리		지점장 사토무라 쇼이치
이리금융조합	이리		조합장 아오타 타케
식산은행지점	이리		지점장 오즈카 코로쿠
익산금융조합	이리		이사장 아사다 사부로
군산미곡상조합	군산		조합장 가나모리 겐조
와타나베 포목점	군산		
기무라 잡화점	군산		점주 다이토 키치타로
우에노양조장	군산		
호남농구주식회사	군산		핵심주주는 사토 마사지로, 나카시마 만키치
죠키상회	군산	건축용 무역상	
담배 원매거래조합	군산		조합장 이소베 켄야
조선냉장고	군산	葛原냉장고	
남선고무주식회사	군산	고무신 제조	처음 경영은 쿠마모토 가즈오
대동양행	군산	미곡위탁업	전무 요시오카 켄키치
朝日 정미소	군산	정백미 및 화물운송	
남조선전기주식회사	군산		사장 칸바야시 이하치
군산미곡신탁주식회사	군산		사장 모리 키쿠고로, 전무 히라하루 토미조
不二육구농장	옥구		전무 후지이 칸타로
동산산업주식회사	전주		사장 사이토 츠토무
동진농업주식회사	김제		사장 아베 후사지로
전북상사주식회사	이리	쌀, 비료, 금융	지배인 오키 후사오
조선 면화회사	이리	이리공장	
전북 잠종업 조합	이리		조합장 다사카 사자부로
하시모토 여관	이리		
삼례산미개량조합	전주		조합원 오기타 도쿠타로 외
달관산 채석장	황등		가타기리 와쵸, 아오키 쇼조
황등금융조합	황등		이사 쿠리하시 야스노리
모리 정미소	황등		모리 기사쿠
함열금융조합	황등		조합장 임준희, 이사 나카무라 모모에
여산산미개량조합	익산	현미 조제	조합장 이시자키 신타로
신태인미곡상조합	신태인		조합장 구보타 마사오

사업계	지역	업종	비고
김계 미곡상조합	김계		창립 조합장 이노우에 마사시치, 현재 이케 마사미
군산미곡신탁회사	군산		사장 모리 키쿠로

3. 재조일본인의 지방 발전사 간행의 특징과 한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지방제도를 개정하여 1914년부터 부제(府制)를 시행하였다. 부제 시행을 전후하여 지방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많은 지방사가 편찬되었다.⁷⁾ 각 지방에 관한 자료집을 출판한 목적은 조선에 대한 인식부족을 해결하고 본국의 식량부족과 과잉인구 문제를 해결하며, 일본인의 조선 이주와 무원개발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즉 총독부는 강점 이후 식민통치를 원활히 하고 조선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조선사정을 조사한 뒤 보고서 등을 간행하였다. 민간에서도 이 방침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지방사를 편찬했는데 총독부는 이를 조선인의 동화와 식민통치의 선전에 이용하였다. 출판을 담당한 재조일본인들은 각 지역의 유지로 총독부와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지방사⁸⁾는 도사(道史), 부사(府史), 발달사, 발전사, 향토사라는 이름으로 간행

7) 최혜주, 2011, 『일제강점기 재조일본인의 지방사 편찬 활동과 조선인식』, 『사학연구』 103, 한국사학회, 161-207쪽.
 8) 지방사는 다음과 같다. 和田孝志, 『新義州史』(1911); 平井斌夫·九貫政二, 『馬山と鎮海灣』(1911); 경성거류민단역소, 『京城發達史』(1912); 富村六郎, 『忠南論山發展史』(1913); 尾西要太郎, 『鮮南發展史』(1913); 평양민단역소, 『平壤發展史』(1914); 酒井政之助, 『發展せる水原』(1914); 대구부, 『大邱民團史』(1914); 釜山甲寅會, 『日鮮通交史-釜山史』(1915); 高尾新右衛門, 『元山發展史』(1916); 篠田治策, 『文祿役と平壤』(1919); 保高正記, 『群山開港史』(1925); 廣瀨憲二, 『歴史の平壤』(1925); 永井勝三, 『北鮮間島史』(1926); 前田力, 『鎮南浦府史』(1926); 경성부공립보통학교, 『(郷土資料)京城五百年』(1926); 山下英爾, 『湖南寶庫 裡里案内-益山發展史』(1927); 宇津木初三郎, 『全羅北道發展史』(1928); 片岡議, 『麗水發展史』(1928); 岩本善文·久保田卓治, 『北鮮の開拓』(1928); 木村晴光, 『慶南略史』(1929); 荻森茂, 『京城と仁川』(1929); 목포부, 『木浦府史』(1930); 진주군교육회, 『晋州概史』(1931); 石本惠吉, 『豆滿江流域史』(1931); 河井朝雄, 『大邱物語』(1931); 安齋霞堂, 『忠清南道發展史』(1932); 경성공립소학교, 『京城の地理歴史』(1932); 長野木喜, 『京城の面影』(1932); 李英, 『忠州發展史』(1933); 인천부, 『仁川府史』(1933); 大森頑石, 『鮮滿發達史』(1933); 片岡議, 『南鐵沿線史』(1933); 宇津木初三郎, 『金堤發展史』(1934); 경성부, 『京城府史』(1934); 함경북도, 『咸北小史』(1935); 군산부, 『群山開港前史』(1935); 군산부, 『群山府史』(1936); 岡田貢, 『京城の沿革』(1936); 岡田貢, 『京城史話』(1936); 부산부, 『釜山府史原稿』(1937); 조선연구사, 『新興之北鮮史』(1937); 稻葉岩吉, 『平安北道史』(1938); 阿部薰, 『北鮮開拓史』(1938); 岡田貢, 『京城の沿革と史蹟』(1941); 전주부, 『全州府史』(1943); 대구부, 『大邱府史』(1943)

되었다. 지방지⁹⁾는 발전지, 연혁지, 향토지, 산업지 그리고 요람, 안내, 부세일반(府勢一般), 사정, 대관(大觀)¹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었다.

재조일본인들의 지방사 편찬활동은 크게 관찬과 사찬으로 나눌 수 있다. 관찬에 속하는 것은 도(부)청에서 주관한 도사 편찬이나 부사 편찬 작업의 일환으로 간행되었다. 사찬에는 1914년 부제 실시로 거류민단이 폐지되자 거류민단의 역사를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류민단사가 있다. 그리고 각 교육회에서 편찬한 향토사가 있고, 언론사가 중심이 되어 편찬한 발전사가 있다. 『조선의 보고-전라북도 발전사』의 경우도 군산일보 기자 우츠기가 편찬한 것이다. 이 책이 주목되는 이유는 일제강점기 전라북도와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 9) 강점 이후 간행된 지방지는 다음과 같다. 足立栗園, 『朝鮮新地誌』(1910): 吉田英三郎, 『朝鮮誌』(1911): 木村靜雄, 『慶州誌』(1912): 山田市太郎, 『北朝鮮地』(1913): 原田彦熊, 『朝鮮開拓誌』(1913): 목포지편찬회, 『木浦誌』(1914): 酒井俊三郎, 『烏致院發展誌』(1915): 釋尾春仍, 『最新朝鮮地誌』(1916): 金谷雅城, 『忠州發展誌』(1916): 藤戶計太, 『最新朝鮮地理』(1916): 田中麗水, 『大田發展誌』(1917): 達無門, 『金泉發展誌』(1918): 藤戶計太, 『朝鮮地理誌』(1918): 총독부, 『朝鮮地誌資料』(1919): 奧田悌, 『慶州誌』(1920): 田中市之助, 『忠南産業誌』(1921): 남해교육회, 『南海郡鄉土誌』(1923): 天野行武, 『忠北産業誌』(1923): 大熊彌三郎, 『清州沿革誌』(1923): 日高友四郎, 『新編朝鮮地誌』(1924): 菊池謙讓, 『朝鮮諸國記』(1925): 取訪史郎, 『馬山港誌』(1926): 古莊仁太郎, 『平壤誌』(1927): 평양상업회의소, 『平壤全誌』(1927): 함경도청, 『咸鏡南道誌』(1930): 奧士居天, 『忠州觀察誌』(1931): 達捨藏, 『慶北沿線發展誌』(1931): 인천교육회, 『仁川鄉土誌』(1932): 加納安正, 『金泉全誌』(1932): 평양교육회, 『平安北道鄉土誌』(1933): 공주공립보통학교교우회, 『忠南鄉土誌』(1935): 豊川善擘, 『朝鮮鄉土地理』(1935): 田中市之助, 『浦項誌』(1935): 재령군교육회, 『載寧郡鄉土誌』(1936): 황해도교육회, 『黃海道鄉土誌』(1937): 평양부, 『平壤大誌』(1938)
- 10) 요람, 사정, 안내 등은 다음과 같다. 大崎峰登, 『鴨綠江』(1910): 대구신문사, 『慶北要覽』(1910): 진남포신보사, 『鎭南浦案内記』(1910): 三輪如鐵, 『朝鮮大邱一般』(1911): 小林六三郎, 『韓國 大田一般』(1912): 福崎毅一, 『京仁通覽』(1912): 三浦好吉, 『鮮南要覽』(1912): 野村喜一郎, 『北鮮視察錄』(1912): 三輪如鐵, 『大邱一般』(1912): 森田福太郎, 『釜山要覽』(1912): 草間芳男, 『黃海道要覽』(1913): 전라북도, 『全羅北道要覽』(1913-1921): 원산상업회의소, 『元山案内』(1914): 평양명승구적보존회, 『平壤之現在及將來』(1915): 北村友一郎, 『光州地方事情』(1916): 동양척식주식회사 경성지점, 『間島事情』(1918): 평양상업회의소, 『平壤府事情要覽』(1919): 대구상업회의소, 『最近大邱要覽』(1920): 경기도편, 『京畿道事情要覽』(1922): 함경남도, 『朝鮮咸鏡南道事情』(1922): 草間芳男, 『黃海道要覽』(1923): 평양부, 『平壤府事情要覽』(1923): 평안북도, 『平北紹介』(1924): 경기도, 『京畿道要覽』(1924,25): 柳川勉, 『黃海道之現狀』(1925): 大曲重義, 『釜山大觀』(1925): 목포부, 『木浦大觀』(1926): 伊藤光三郎, 『群山案内』(1926): 황해도, 『黃海道要覽』(1927): 牛丸潤亮, 『最近間島事情』(1927): 익산군편, 『益山郡事情』(1928): 坂上富藏, 『江景事情』(1928): 함경북도, 『咸北要覽』(1928): 평안남도, 『平安南道要覽』(1928): 川島喜彙, 『新釜山大觀』(1934): 충청북도, 『忠清北道要覽』(1934): 제주도, 『濟州道道勢要覽』(1936): 矢野千城, 『新版大京城案内』(1936): 조선신문사대관편집부, 『大京城大觀』(1936): 竹林修三, 『北鮮及北滿事情』(1936): 경상남도, 『道事業概況』(1938): 진남포상공회의소, 『鎭南浦港案内』(1938): 勝田伊助, 『晋州大觀』(1940)

수룩하고 있기 때문이다. 편찬주체가 일본인이 경영하는 신문사의 기자라는 한계가 있으나 일제강점기의 전라북도 연구 자료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 지방 신문사에서 활약하는 일선기자, 신문사 사장 등이 간행한 것은 각 지방이 식민통치의 결과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선전하는 내용과 부원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일제하 지방신문의 역할은 재조일 본인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이 되거나 일본인 지방유지가 경영진에 참여하여 의사소통 수단이 되었다고 한다.¹¹⁾ 지방신문이 일본인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의 수단이 되기도 한 것은 그들이 언론계에서 활동하다가 지방의회 의원이 되거나, 상공회의소에서 활동하다가 신문사 경영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각 지방에서 편찬된 발전사(지)는 그리 많지 않다. 『京城發達史』(1912, 경성거류민단역소, 靑柳綱太郎 축탁), 『忠南論山發展史』(1913, 富村六郎), 『鮮南發展史』(1913, 尾西要太郎, 조선신문사, 인천), 『平壤發展史』(1914, 평양민단역소, 熊谷直亮 민장), 『發展せる水原』(1914, 酒井政之助, 조선신문 수원지국장), 『元山發展史』(1916, 高尾新右衛門, 민단축탁), 『湖南寶庫 裡里案内-益山發展史』(1927, 山下英爾, 호남일보), 『全羅北道發展史』(1928, 宇津木初三郎, 군산일보 기자), 『麗水發展史』(1928, 片岡議, 광주일보사장), 『忠淸南道發展史』(1932, 安齋霞堂, 호남일보 기자), 『忠州發展史』(1933, 李英), 『鮮滿發達史』(1933, 大森頑石, 오사카), 『金堤發展史』(1934, 宇津木初三郎), 『鳥致院發展誌』(1915, 酒井俊三郎), 『忠州發展誌』(1916, 金谷雅城), 『大田發展誌』(1917, 田中麗水), 『金泉發展誌』(1918, 達無門), 『慶北沿線發展誌』(1931, 達捨藏) 등이다.

지방사 편찬 주체들의 구체적 간행 목적은 약간씩 달랐다. 도(부)청은 총독부 선정의 결과를 선전하고, 민단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쓴 재조일본인들의 노력과 희생을 강조하고, 교육회는 일선학교에서의 교육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미 고대부터 일본이 점령하여 보호하고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언론사와 각 단체는 1930년대 이후에는 부원개발과 침략전쟁 수행에 협조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간행목적이 일치했다.

첫째, 일본인의 조선과 각 지방에 대한 인식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였다. 지방에 관한 저서가 하나도 없거나 자료가 있더라도 기초조사가 잘못되어 투자를 주저하는 자가 있었다. 둘째, 일본의 부족한 식량과 과잉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셋째, 조선의 부원개발과 일본인의 이주 장려 및 사업 유치를 위해서였다. 이를 통해 일본인이 조선에 정주하는 식민도시를 만들어 가는

11) 박용규, 2006, 『일제시기 재조선 일본인과 지방신문의 역할』,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서울, 73쪽.

것이 하나의 목표였다. 이주하는 일본인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조선인의 사상문제도 해결된다고 보았다. 이때 지방선정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교통의 요지, 경제적 가치, 군사상, 역사상 일본과 교섭이 많았던 곳을 꼽았다. 이는 철도부설이나 내지항로 개척의 중요성과 함께 도시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발전책을 강구하는 작업이었다. 넷째, 식민통치의 선정으로 ‘발전’한 조선을 국내외에 과시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내선융화’의 치적을 널리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¹²⁾

일제강점기 일본은 전북평야에서 생산되는 미곡을 본격적으로 수탈하기 위해 군산항을 개항시켰고, 이를 통해 전북지역에는 대규모 일본인 지주농장이 설립되었다. 구마모토(熊本)농장, 후지(不二)농업주식회사, 다키(多木)농장, 이시카와현(石川縣)농업주식회사, 호소카와(細川)농장, 후타바사(二葉社)농장, 동산(東山)농사주식회사 전북출장소 등이 있었다. 그러나 『조선의 보고-전라북도 발전사』에는 이들이 “조선 개척의 은인”으로 분투하는 활동상을 소개하는 문세점도 보인다. 이 책을 자료로서 이용할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소작인에 대한 식민지주들의 수탈이 아닌 시혜를 강조한 점이다. 조선인 농민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갔으며 소작인이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농민들의 이익은 매우 많았다. 이 또한 오로지 그(카이 산지)의 노력의 결과였고, 소작인은 모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¹³⁾ 둘째, 일본인의 조선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조선인은 게으르고 허영심 가득한 큰 결점을 지녔다는 것이다. “일반 조선인은 사상에 사로잡혀 있거나 무종교이거나 하기 때문에, 대개 화려한 것에 빠지기 쉽고 허영심에 쫓겨 자제와 절약을 하는 미풍이 부족한데, 이것은 단체생활을 통해 공존공영을 도모하는 인간으로서 큰 결점이 되므로, 우선 종교적 신앙을 품게 하여 그 약점을 교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¹⁴⁾ 셋째, 산미증식계획은 조선에 지워진 중대한 책무라는 인식이다. “그는 조선의 농사가 아직 유치하고, 조잡한 것은 상상 이상이고, 개선 향상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알고, 또한 조선농사의 개발은 실로 조선을 위해서도, 그리고 일본제국을 위해서도 눈앞의 최대 급선무임을 자각하고, 내선의 공존공영의 대국에서 보더라도, 반드시 장래의 유망한 농사경영은 크게는 국가를 위해, 작게는 일가를 위해 성공을 기해야 한다고 큰 결심을 하고, 단신으로 향리를 떠나 현재의 땅을 선택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12) 최혜주, 앞의 논문, 161-207쪽.

13) 『조선의 보고-전라북도 발전사』, 지경 카이 산지(甲斐三二)씨, 143쪽.

14) 『조선의 보고-전라북도 발전사』, 옥구군 森谷농장 모리타니 겐이치, 197쪽.

처음으로 농사경영에 착수하였다”¹⁵⁾고 소개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에 재조일본인들이 지방사를 편찬한 목적은 일본인의 조선에 대한 인식부족을 해결하고, 식량부족과 과잉인구 문제를 해결하며, 부원 개발과 일본인의 이주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방사 편찬에 나타난 한계점도 있었다. 일본인에 의한 지역개척, 고전과 분투의 역사를 묘사하다 보니 조선인 사회에 대한 기술이나 조선인과 조선역사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였다. 조선의 지방사 간행을 표방한 발전사였지만 조선인이 보이지 않는 구조였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재조일본인의 지방사 및 발전사 간행에 관한 연구¹⁶⁾와 번역서 발간¹⁷⁾을 통해 지방사 및 발전사의 전체적인 편찬 현황과 편찬 목

15) 『조선의 보고-전라북도 발전사』, 부안 가와노 나가히사, 234쪽.

16) 최혜주, 앞의 논문; 이동주, 2011, 『奥田悌의 <경주지> 발간의 역사적 성격』, 『동국사학』51,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최혜주, 2012, 『개항 이후 일본인의 조선사정 조서와 안내서 간행』, 『한국민족운동사연구』7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최혜주, 2013, 『1900년대 일본인의 조선이주 안내서 간행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7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최혜주, 2014, 『1910년대 일본인의 조선이주 안내서 간행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8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허영란, 2014, 『재조선 일본인이 재현하는 지방-일제시기 지방지 편찬을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부경역사연구소; 정상우, 2014, 『일제강점 말기 편찬 지방사에서의 지방구현-<대구부사>(1943)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45, 동북아역사재단; 정상우, 2015, 『일제하 ‘전주’ 지방의 지방사 편찬-<전주부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문화』71; 이동훈, 2020, 『재조일본인 사회의 ‘발전사’ 간행과 일본의 향토 연구』, 『일본학』50,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이동훈, 2021, 『재조일본인 사회의 발전사 간행과 식민자들의 창조된 향토』, 『비교일본학』52,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신귀백, 2022, 『일제강점기 이리에서의 일본인의 균열과 도시침체-일본인 저작을 중심으로』, 『전북학연구』6,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17) 손필현, 1998, 『대구이야기』, 대구중구문화원; 임학성 외, 2005, 『(역주)인천향토지』,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05, 『(역주)인천향』; 정혜중, 2008, 『(역주)인천의 사회와 역사』,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손필현, 2009, 『개화기의 대구부사』, 서우실·홍성덕·김철배·박현석, 2009, 『(국역)전주부사』, 전주시 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09, 『(역주)인천과 인천향』; 김인덕·기미지마 가즈히코, 2010, 『(국역)경성발달사』,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11, 『(역주)인천부세일반:1935-1936』; 목포문화원, 2011, 『(완역)목포부사』; 이연식·오일환·이권희, 2015, 『(국역)경성부사』1-3, 서울시 사사편찬위원회; 리진호, 2017, 『군산 부세개요』, 지적박물관; 리진호, 2019, 『충주발전사』, 지적박물관; 홍성덕·이정우·편용우, 2019, 『(국역)군산부사』, 전주대; 최혜주, 2019, 『군산개항전사』, 전북연구

적, 편찬 내용 등이 밝혀졌다. 그러나 개별 출판물에 대한 치밀한 연구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보고-전라북도 발전사』는 전라북도 지역을 비롯한 재조일본인 연구에 중요한 연구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앞서 <표 1>과 <표 2>에서 보았듯이 당시 활동한 인물에 대한 분석 연구를 통해 일제의 식민통치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다. 또 일본인들이 이 지역에 어떻게 이주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지방사 및 발전사 관련 자료 수집과 연구 및 번역작업이 필요하다. 우즈기는 1934년에는 ‘호남의 보고’인 김제 개발을 주장하며 김제지역의 유력한 공직자나 유지들의 신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김제발전사』를 간행하였다. 이에 대한 검토는 후일의 과제로 삼고 싶다.

